



책임을 다하는 스위스 호텔.

환경도, 지역사회도, 직원도

모두 지속가능하도록

초록 환경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행복한 직원까지

책임을 다하는 스위스 호텔(The Responsible Hotels of Switzerland)이라는 카테고리의 숙소를 소개한다.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호텔로, 엄격한 지역 생산물 공수, 플라스틱 비사용, 직원 지원 및 인턴십 제공, 에너지 절약 기반 시설 분야에 있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실히 책임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 설립된 연합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도 책임 의식을 갖춘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별 회원 호텔은 저마다 강렬한 개성을 품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이들 호텔을 ‘리스판서블 호텔(The Responsible Hotels of Switzerland)’이라는 레이블로 묶고, 그 자격을 관리해 인증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호텔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그린

책임을 다하는 스위스 호텔은 에너지 절약 기반 시설이나 호텔 소유의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 사용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있어 솔선 수범한다.

2. 지역사회 기여

동네 목수가 만든 침대에서 잠들고, 마을 도자기 공방에서 만든 그릇으로 먹고, 로컬 와인 생산지에서 만든 와인을 음미하는 등, 지역 내 사업과 상생을 도모한다.

3. 직원 지원

더 나은 발전 기회, 커리어 플래닝, 인턴십 기회, 현대적인 직원 숙소 등, 직원과 그들을 위한 지원은 이런 책임을 다하는 호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호텔 중, 몇 곳을 소개한다.

1. 마티니 부티크 호텔(mARTigny Boutique Hôtel)***s, 마티니(Martigny)

수페리어 3성급 부티크 호텔로, 마티니(Martigny) 마을 한복판에 있다. 휴먼 터치가 이 호텔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 약 4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호텔이다. 와인 바와 “라 코딜레르(La Cordillère)” 레스토랑이 있는데, 페루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호텔 배지를 달고 주방과 사무실에서 각자의 일을 하거나,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하이드어웨이 리조트 파플러알프(Hideaway Resort Fafleralp), 블라텐(Blatten)

찰리 채플린이 “파플러알프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라고 경탄했다는 알프스 들판에 있다. 하이커와 미식가 모두에게 천국 같은 호텔이다. 그룹 용 도미토리부터 웰니스 스위트 룸까지, 모든 예산의 여행자를 만족시켜 준다. 100년이나 된 샬레에는 24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뢰첸탈(Lötschental) 계곡의 해발고도 1,800m 에 위치한 만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스위스식 휴양을 체험할 수 있다. 발레 주의 향토식을 근사하게 차려내는 셰프도 있다. 특별한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발리저슈투베(Walliserstube)에서는 호텔 소유의 미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조명을 한다.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와인은 호텔 소유의 포도밭에서 생산한 것이다. 호텔이 직접 고용한 마운틴 가이드도 있는데, 뢰첸탈 곳곳으로 가이드 하이킹 투어를 떠날 수 있다.

3. 가이아 호텔(Gaia Hotel)****, 바젤(Basel)

“가이아”는 “대지”를 뜻하는데, 우리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품고 있다. 그런 이름에 맞게 미래 세대를 위한 웰빙, 행복, 희망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호텔로, 1929년부터 네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동안 한 가문이 운영해 오고 있는 4성급 오가닉 시티 호텔이다. 바젤 기차역에서 가까이 있어, 구시가지와 박물관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다. 모든 객실은 깔끔한 부티크 호텔 스타일로, 무료 미니바가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및 순환 방식으로 재배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조식 뷔페도 유기농 및 로컬 재료로 구성되는데, 건축 문화재로 지정된 웅장하고 유서 깊은 식당에서 우아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이 호텔 곳곳을 장식한다.

4. 그랜드호텔 기스바흐(Grandhotel Giessbach)****, 브리엔츠(Brienz)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호텔이다. 그랜드호텔 기스바흐는 호텔 옆에 있는 개천에서 호텔 소유의 발전소를 운영해 호텔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생산한다. 폭포 옆, 호수 앞에 위치한 탁월한 위치가 화려하기 그지없다.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 호텔 중 하나로 꼽힌다. 1872년에 지어진 호텔인 만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매력이 현대적으로 개조된 호텔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퓨니쿨러를 타고 호텔 소유의 선착장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기선을 타고 브리엔츠 호수를 따라 작은 마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5. 비더 호텔(Widder Hotel)*****, 취리히(Zurich)

비더 호텔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트랜 시스템 덕분에 식재료 준비와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엄격한 분리배출로 정확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호텔은 아홉 개의 유서 깊은 중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앤티크와 현대 아트, 디자인 클래식으로 단장한 객실이 아름답다. 파인 다이닝, 싱글 몰트 위스키 바, 낭만적인 안뜰, 테크노 짐, 라이브러리, 비즈니스 센터 등 여행자 및 출장객을 위한 서비스와 공간으로 꼭 차 있다.

6. 벨베데레 스위스 퀄리티 호텔 그린델발트(Belvedere Swiss Quality Hotel Grindelwald)*****, 그린델발트(Grindelwald)

‘그린’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호텔이다. 자연 존중과 자원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전구를 사용해 호텔 전면을 조명하고, 사우나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공공 구간의 냉난방을 줄인다. 에어컨 및 환풍 시스템에서 발생한 잔여 열기를 활용해 실내 풀장 수온을 높이기도 한다. 이런 책임감 있는 호텔의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융프라우(Jungfrau) 지역의 명봉, 아이거(Eiger) 및 베테호른(Wetterhorn)이 더욱 질푸른 초록으로 다가온다. 하우스어(Hausser) 가문이 1907년 호텔을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대를 이어 세심하게 운영해온 호텔인 만큼, 친밀한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다.

7. 체르마트(Zermatt)의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CERVO Mountain Resort)*****

2009년 체르보가 처음 생겼을 당시부터 생태 및 사회적 책임감은 이 근사한 리조트의 핵심 원칙이었다. 사람과 환경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체르보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다짐이 체르보 운영 전반을 꿰뚫고 있다. 스파 확장 때에도 이런 신념이 세심하고 심각하게 반영되었다. 웅장한 마테호른(Matterhorn) 봉우리가 정점을 찍는 환상적인 뷰를 펼쳐내는 체르보는 평온한 숲과



생기 넘치는 마을 사이에 자리해 있다. 아홉 개의 럭셔리 스타일 롯지는 걸거나 리프트로 찾아갈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 있어 혁신적인 알프스 샬레 콤플렉스는 스키/헌팅 롯지와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려냈다. 리조트의 마운틴 아쉬람 스파(Mountain Ashram Spa)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근교에서 채취한 허브를 사용하는 트리트먼트와 감탄스러운 노딕 사우나, 목조 오두막에서의 부탄식 핫 스톤 바스, 마테호른 뷰가 펼쳐지는 42°C 온수의 노천탕은 스위스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천연 제품을 사용한 뷰티 트리트먼트를 포함해 필라테스 및 요가, 명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